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7

8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清 香 (48x48-Acrylic on Canvas)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허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 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 스님 계송은 언제 들어도 새롭습
니다. 법정 스님께서 그토록 연꽃을 좋
아하셨듯 저 또한 연꽃을 즐겨 그리며
그 계송을 늘 마음에 담고 삽니다.

고 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7 / 8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일요특강	1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1운동에 대한 기억 소환
따뜻한 이야기	16	그런데도 불구하고
꽃은 흠에서 핀다	18	내 얼굴
모단 에ッセ이	23	냉면
아름다운 마무리	26	8월 결연 대상자 - 이정희(가명)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8	일단, 공감!
황혼, 그 기막힌 순간을 지나며	31	늪어갈 용기
古典을 읽다	34	빅터 플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전에서 배우는 지혜	39	살 빼는 방법
맑고 향기롭게 소식	41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8월 1일 발행 / 통권 270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글 • 법 정(法 頂)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관이 안정되고 총명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셔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이더라도

겁에 떨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치건 짧고 가는 것이건

또는 조잡하고 거대한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

거나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꿀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한 자비를 행하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함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부른다.

* 신성한 경지를 범주梵住라고 한다.

온갖 사특한 소견에 팔리지 말고,

계행戒行을 지키고 지견知見을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

이다.

* 모태에 드는 일이 없다는 것은 생사에 윤회

가 없다는 말.

- 강론 -

작은 것을 갖고도 만족하라

《숫타니파타》에 수록된 경전
중에서도 이 ‘자비’의 장은 아주 짧은
경전이다. 분량은 짧지만, 본질
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 들을 말
하고 있지만,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일상적인 우리들도 삶의 의
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사람다운
일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 것
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
겠는가. 사실 종교적인 이론은 메

마르고 딱딱하기 그지없다.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과 행위야말로 생기 있는 삶의 본질을 이룬다.

요 며칠 동안 34.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산중이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어울려 사는 도시는 훨씬 더 무더울 것이다. 이런 날은 좌선도 독서도 또는 글 쓰는 일도 따분하다. 능률이 오르지 않을 뿐더러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는 것은 사는 일이 될 수가 없다.

어제는 헛간에서 판자쪽을 꺼내어 톱으로 썰고 대패로 밀고 망치로 못을 박아 다락에 놓고 쓸 받침대를 하나 만들었다. 급한 성미라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 미루면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곱팡이를 피워 다른 일에게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리고 생각했던 일을 마치고 나야 또

다른 일로 옮길 수 있다. 한 자락 깔아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헛간에 세워두었던 판자가, 아무 표정도 없이 하나의 재료에 지나지 않던 그 판자가, 사람의 생각과 손길이 닿자 새로운 생명을 얻어 쓰임새 있는 하나의 구조물이 된 것이다.

또닥또닥 일에 열중하느라고 한 낮의 더위도 잊어버렸다. 일을 끝내고 그 받침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의 흐뭇한 기쁨은 이 무더위 속에서 얻기 힘든 상쾌함이었다. 우물가에 내려가 샘물을 끼얹고 나니 마음과 몸이 날 듯이가 베풀졌다.

오늘 해질녘에는 새로 꽃향기를 풍기기 시작한 치자나무와 채소밭에 샘물을 길어 뿌려주었다. 시들시들하던 꽃나무와 채소들이 생기를 되찾으니, 나 또한 생기와 잔잔

한 기쁨이 배어 나왔다. 관계의 이웃이란 이와 같이 생기를 나누어 가짐이다.

G. 아귀에스의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소책자 속에 이런 구절이 들어 있다.

함께 있는 두 사람 사이를 가장 멀리 느끼게 하는 것은 사랑의 결핍이다.

떨어져 있는 두 사람 사이를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하는 것은 사랑의 유대다.

웁은 말이다. 한 지붕 밑에서 한 숟밥을 먹고 늘 치대면서 함께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가 10만 8천 리다. 아주 먼 거리를 가리키는 불교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장의 말씨며 날씨에까지 마음을 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그늘이다.

우리 속담에 “마음이 천 리면 지척도 천 리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 리도 지척이다.”라는 말은 이런 소식을 대변해준다.

어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건성으로 사랑하는 체하거나 또는 까닭없이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불행하다. 물론 까닭이 있어 미워하겠지만, 어쨌든 미워하는 일은 잘못 사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다. 그 책 속의 사연은 계속된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 자체가 이미 확신이므로 헤아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누어 갖는 것이므로 반드시 넘쳐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넘쳐흐르는 것은
헤아릴 수도, 헤아릴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본시
넘쳐흐르는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사랑을 헤아리려는 사람들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줄수록 넉넉해지는 마음
이다. 주어도 주어도 더 못 주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여기 받으려
는 생각이 끼여들면 그것은 이미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예언자》에서 지적한 칼릴 지
브란의 말처럼, 사랑은 자기 자신
밖에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고, 자
기 자신에게서밖에 아무것도 뺏는
것이 없다.

사랑은 소유하지도 않고 누구의
소유가 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 그 자체만으로 죽하
기 때문이다.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았는지를
헤아리고 따지는 것은 장삿속 거

래지 사랑이 아니다. 우리 옛 시조
에도 있다.

사랑이 어떻더냐 둥글더냐 모나더냐
길더냐 짧더냐 자로 잰 수 있겠더냐
얼마나 긴지는 몰라도 애끊는 듯하더라.

날씨가 무더운 바람에 객소리가
길어졌다. 그러면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보자. 주석서에 따르면, 부
처님은 이 ‘자비’를 호주護呪(보호
해 주는 주문)로서도 설했다고 한
다. 우리는 ‘주문’ 이라고 하면 무
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이 중
얼중얼 외우는 다라니나 진언 같
은 것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주문이 진실한 말[眞言]
이라면, 그 뜻부터 충분히 이해하
고 외워 실천해야 한다. 아무 뜻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외우기만 하
면 공덕이 된다고 하지만, 굳이 공
덕을 따지기로 말하면, 뜻을 모르
고 진성으로 외우기보다는 뜻을

알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편이 훨씬 공덕이 되어야 한다.

불타 석가모니의 이성적인 가르
침에 비밀은 없다고 부처님 자신이
분명히 선언한 바 있다. 다라니나
진언에 어째서 뜻이 없단 말인가,
뜻 없는 소리를 무엇 때문에 경전
에 수록했겠는가. 원어를 깨쳐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진실한 말
씀’의 뜻을 엉뚱하게 잘못 받아들
인 데서 온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
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이런 자
비의 선언이야말로 ‘진실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기독교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인
간 본위다. 그래서 소나 개, 돼지,
노루나 사슴, 토끼 같은 짐승은 모
두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라고 하나
님이 만들어냈다고 한다. 소나 개
한테 가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것

도 없이 유목 사회에서 나옴직한
가설이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자
비는 인간 본위가 아니라 생명 본
위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一切衆
生]은 생명의 큰 뿌리에서 나누어
진 가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살
아있는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한다. 만일 산 목숨을 해치
거나 괴롭히면 큰 죄가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보살계의 첫째는 불살생不殺生을
강조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제가 죽이
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해 죽게 하
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
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는 안 된다.
즉, 죽이는 인인(직접 원인)과 죽
이는 연緣(간접 원인)과 죽이는 방
법과 죽이는 업業으로 목숨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항

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 목숨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불살생계를 두고 이처럼 상세히 규제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일찍이 어디에서도 본 바가 없다.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계책은 타율적인 또는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규범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의 질서다. 그 질서가 무너질 때 자기 삶의 규범에 균열이 생긴다.

산 목숨을 죽이지 않을 뿐더러 한 걸음 나아가 보살피고 사랑하라는 것.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고 했다.

그리고 또 “은 세계에 대해서 한

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고 했다.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를 행하라고 한 것은, 좋은 말만 늘어놓는 그저 그렇고 그런 한낱 경전의 표현으로 여기고 지나치지 말라는 뜻이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비의 생활 규범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사는 일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자비로 대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의 삶이 곧 자비로 충만해질 것이다.

“저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런 생활 태도를 가리켜 숭고한 경지 또는 신성한 경지라고 부른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조그

마한 것을 갖고도 거기서 넉넉함을 알고,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될 수 있는 한 비본질적인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고 담백하게 한다. 보고 듣고 하는 감각이 안정되어 마음이 항상 평온해 흐트러짐이 없다. 그리고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세간살이나 가재도구를 보고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않는

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은 이미 자비로 가득 채워져 있어, 더 채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세간적인 갈등이나 미혹이 없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이 경전은 끝을 맺고 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법정스님 글의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고 초등학생 예술 창작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사)맑고향기롭게에서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정신을 널리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 2017.8.14(월)~9.14(토)
- 참가 대상 : 전국 초등학생
- 접수 인원 : 선착순 150명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
- 접수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행사 안내

- 일시 : 2017. 09. 24(일)
13:00~18:00
- 장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 내
- 참가 부분 : 운문·산문
-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받침대, 돗자리, 물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 / Tel. 02.741-4696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1운동에 대한 기억 소환 -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며

글 • 김주용(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위의 인용문은 대한민국 수립 당시 헌법입니다. 이후에 헌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헌법 아래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밝혔듯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7년 수정된 헌법 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먼저 3.1독립선언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

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후략)

공약삼장

1. 금일 오인의 차거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족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1.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1.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대가지던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저는 오늘 3.1운동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것이 오늘날 왜 중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경절 문제를 1919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국경일과 국경일 명칭안의 입안이 결정되었으며,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제정하였습니다.

마침내 1920년 3월 1일 오전 10시 임시의정원에서 이동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원과 정부 직원 그리고 임시의정원 및 인성학교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고, 오후 2시 정안사로 올림픽극장에서 대한교민단이 주관하는 3.1절 축하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교민단장 여운형의 개회사, 이화숙의 축하독창, 이동휘, 이동녕, 안창호의 축사로, 외빈 대표 이인걸의 축사, 중국남녀 학생의 축하무예 공연을 끝으로 오후 4시 반 제1회 3.1절 축하식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천

명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 스스로 단결을 다지는 행사로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국경일로 제정하였을까요. 바로 3.1운동으로 독립국임을 천명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1919년 3월 1일의 독립선언이 곧 대한민국의 독립이자 건국이며, 이를 계승한 전국대표가 상해에 모여 수립한 것이 임시정부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는 해마다 3.1절을 국경일로 기념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의 기억을 소환하여 임시정부는 사분오열되고 있는 독립운동세력을 통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대동단결”입니다. 1920년 3.1절 기념식에서 도산 안창호는 “일본인들이 3.1운동을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민족은 이

날을 영원히 유효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21년 임시대통령 이승만은 “더욱 결합하고 더욱 융화”할 것을, 김규식은 “심心を 단결하고 성誠을 합하여 주야 분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단결이 민족의 사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3.1운동에서 보여주었던 민족의 저력을 기억 저편에서 다시 끄집어내어 오늘을 성찰하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사의 저 이후 상해에서의 공식적인 3.1절 기념식은 거행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에는 강고한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일 독립기념관에서 공개된 배준철 자료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3.1운동을 어떻게 여기고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중경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4년 3월 1일 기념식에서 “한민족의 위대한 혁명 기념일”에 총단결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3.1운동을 단순한 독립선언이 아니라 일제 강점과 전국대의 구국을 탈피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립을 지향한 민주혁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1운동의 기억에서 삼균주의(삼정권, 수익권, 수확권)를 원리로 건국강령을 소환한 임시정부는 이를 통해 해방 후 수립될 새로운 독립국가에 지향할 기본 이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자유, 평등, 진보였습니다. 이것은 3.1독립선언에 나오는 정의와 인도를 제창한 반바시스트 운동이며, 공존공영의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국절의 하구성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건국절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는 일본의 우익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대한민

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일본이 주장했던 ‘한국분리독립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한일협정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을 ‘분리 독립의 요구를 받아들여 독립된 신생독립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분리독립을 허락했다는 주장에는 한국병합과 이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모든 독립운동은 불법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3.1운동도 불령선인, 폭도들의 소요사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립운동가는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일본 우익의 주장인데 대한민국에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바뀌야 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의사가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는 긴급 전화를 받고 외부에서 병원에 급히 들어와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수술을 기다리던 아이의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오는 데 종일 걸리나요? 지금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데……. 당신은 의사로서 책임감이 없는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진정해주세요.”

“진정하라고요?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의사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차분히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술을 잘 끝내고 나온 의사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다른 상황은 간호사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는 수술실에서 급히 달려 나갔습니다.

이를 본 아이 아버지는 화를 내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의사는 왜 저렇게 거만한 거요? 내가 아들의 상태를 묻기 전에 가버리다니……. 좀 더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말을 들은 간호사는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자녀가 어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장례 중이지만 수술 연락을 받고 급히 들어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슬픔을 억누르고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자녀의 장례를 마무리하려 급히 가신 거예요.”

내 기준에서 타인을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그 사람의 행동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한 박자 느리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달의 명언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으로 머리가 가득 차서 남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 라 로슈코프 -

* 출처 : 따뜻한 하루

내 얼굴

글 • 김기철(도예가)

자기 얼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대개는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 같다. 자신의 얼굴에 지극한 관심을 쏟는 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럼 당신은 어느 쪽이요 한다면 글썽 어정쩡하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칠십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어디다 초점을 맞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긴 솔직히 뒤돌아보면 무관심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침저녁으로 제 모습이 어떤가 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변덕이 팔죽 끓듯 미소도 짓다 징그렸다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내 습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다만 얼마나 심각하게, 아니면 낮가죽 두껍게 그 순간을 넘

겼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곰곰 생각해보면 그때그때의 상황과 심리 상태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기고만장하게 자만도 하고 실망도 하는 것을 반복해 온 것 같다.

한마디로 여기서 자만이란 웃기는 소리이다. 눈에 콩깍지가 씌지 않고는 결코 자만할 만한 얼굴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저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껏 고개를 치켜들고 건방을 떠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다.

아마 삼십대 중반쯤의 일인데, 한번은 남대문시장 바닥을 지나게 되었다. 아침나절이었는데 시장 통은 비교적 한산했다. 어느 가게 앞을 지나는데 여자들 대어섯이 지

나는 사람을 보고 피식피식 웃어 대며 한다는 소리가 “배우 같은데, 꼭 빼닮지 않았어?”하고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자기네끼리 입방아를 찧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배우 같다고요?” “네에, 어쩐 그렇게 똑같아요?” “거짓말 마세요!” 나는 점입가경으로 흥분된 목소리로 여자들 쪽으로 다가섰다. “세상에, 거짓말이라니요? 저 눈하고 이마 좀 봐!” 하고는 허리가 부러지게 웃어 제꼈다. “누구죠?” 여자들은 멍칠포칠포 하더니 아무개라고 하는데 그

는 아주 인상파 악역 배우였다. “저 눈하고 이마 좀 봐!” 하는데 나의 환상은 박살이 나고 말았다. 왜냐하면 내 얼굴에서 눈과 이마는 못생긴 것으로 천하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때는 돈만 생기면 이 새우젓 같은 눈을 쪽 찌서 쌍꺼풀을 만들

겠다고 버르기를 열두 번도 더 했었다. 정말 호수 같은 큰 눈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더불어 번듯한 넓은 이마를 한 사람을 보면 내 좁아터진 이마가 더욱 속이 상했다. 이마가 좁으면 소갈머리도 좁다는 소리를 늘상 들었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는 것은 요 좁아터진 이마하고 눈통이가 소복한 눈 때문이라고 원망을 했다.

사람은 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인상을 만들려고 거울 앞에 눌러 붙어 있어봐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눈썹하고 코는 웬만큼 잘생겼다고 자위를 하기 때문에 우거지상은 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행히 코는 동양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제법 높이가 있어서 얼굴 중심을 잡아주지 않았나 싶다. 물론 현대감각의 잣대로 잴다면 드높은 서양 사람들의 그것에 비하면 빈

대 몇 마리 포개 놓은 것 정도이지 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얼굴로 볼 때 내 코의 비중은 지극히 양호한 편이어서 이 못난 얼굴을 들고 다니는 데 큰 뭇이 돼줬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잘생긴 코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이 매혹적인 코를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콧대나 콧날개, 콧구멍의 생김새가 얼굴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잘 지은 현대 빌딩 같은 조형미로 얼굴 한가운데서 홀로 우뚝 윤기를 번들대며 빛나고 있을 때 비록 광대뼈에 주걱턱을 하고 있을지라도 얼굴값을 할 만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황새부리처럼 무턱대고 높은 코를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아무리 잘생긴 코라도 얼굴에 비해 왜소하면 주먹코만도 못하다는 것을 말하러니 적어도 동양인의 코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간

의 볼륨은 느껴지는 것이 수준급인 것 같다. 그리고 보니 나의 얼굴 중심을 잡아준다는 코가 결국 내 얼굴을 받쳐 주는 데 얼마나 역할을 해 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없다. 코 하나라도 우뚝해서 날마다 들여다보며 문지르고 두들겨서 공을 들였다면 그나마 늘그막에 이 모양 이 꼴로 병든 노새 같은 모습은 아닐 텐데…….

어떻게든 남에게 잘생긴 얼굴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코가 잘생기고, 눈이 잘생긴 것보다는 이목구비가 그 얼굴에서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에 있는 것 같다. 사실 때때로 체험하는 일인데 코며 눈이며 이마가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로 나무랄 데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설피 얼굴이 있다. 반면 이러한 개체들이 그다지 잘 생기질 않았어도 전체 얼굴이 주는 인상은 그럴듯한 경우를 본

다. 나는 가끔 사람들의 얼굴이 놀랍게도 아주 멋있게 보이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반면 어떤 때는 기분 나쁘게 추악한 꼴로 굳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 이게 뭘까? 누구든 거울을 앞에 놓고 기분 좋게 웃는 얼굴을 한번 바라보라! 그런 다음 악의에 차서 울화를 터뜨리는 모습을 비춰보면 똑같은 얼굴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인상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수많은 책을 통해 알고 있지만 겉껍데기만 꾸미려고 안간힘을 쓰고들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나도 한때는 웨이브로션도 바르고 밀크로션으로 맥질을 해대기도 했다. 그래봐야 빈말이라도 미남이란 소리 한번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러지 못한 게 철천지한이 됐지는 모르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얼굴을 바로 세우고 길바닥을 활보하며 멀쩡히 살아 왔으니 아예 포기한 것이 뱃심 편하게 해줬는지도 모를 일이다.

속물근성으로 뭘니 뭘니 해도 내 얼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수염이다. 청소년기와 젊었을 때는 이 수염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한다. 십대에도 애아범 같다는 소리를 안 들었나, 장가도 가기 전 이십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간 줄 알았다고들 안 하나, 한번은 한 사십 된 줄 알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장가는 다 갔구나’하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던 것이 오십대에 수염을 기르며부터 숨어 있던 위력이 나타났다. 내가 수염을 기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면도를 할 때마다 하고 나서의 내 얼굴에 더욱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잖아도 날카롭다는 소리를 잘 듣는 터

에 양 볼이 푹 꺼진 땡땡송송한 얼굴은 웬지 기분 나쁠 정도였다. 그런데 묘한 것은 제법 수염이 덩수룩하게 자랐을 때(면도를 위낙 싫어해서 마지못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면도를 하려면 물을 바른 내 얼굴이 언제나 괜찮아 보였다. 뻥뻥한 구레나룻이 양 볼을 덮으니 부드러워 보이는 게 사실이었다. 수염을 키운다고 해봐야 기껏 2, 3밀리미터 정도인데 빼적 마른 얼굴도 푸근해 보이고 얼굴 윤곽도 어색한 것은 아니었다. 이젠 나이가 들어 흰 눈이 덮이듯 하얗게 양 볼을 씌우고 있지만 윤기 나는 양털은 못 돼도 토끼털 정도는 되니 복스러운 수염이란 소리는 못 들어도 여인네 메이크업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꼴이고 보니 민망한 기분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나는 때때로 인생을 잘 살아온 얼굴을 만나게 된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내가 아는 몇몇 분들도 노년의 모습이 정말 부럽기 이를 데 없다. 처음부터 잘 타고나서가 아니라 살아온 삶의 자취가 저토록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크나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젊었을 때 기가 막히게 잘 생긴 미남 미녀들이 추악한 노년의 모습으로 변모돼 있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반면 못생긴 걸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했을까 감탄하게 되는 예도 적지 않다. 결국 외모가 잘나야 한다는 것이 결코 중요치 않다는 것을 새삼 뒤늦게 이 나이에 와서야 절감하게 된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결국 마음 잘 쓰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멋진 노년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 싶다.

냉면

글 • 김남천(소설가, 문학평론가)

‘냉면’이라는 말이 ‘평양이 붙어서 ‘평양냉면’이라야 비로소 어울리는 격에 맞는 말이 되듯이 냉면은 평양에 있어 대표적인 음식이다. 언제부터 이 냉면이 평양에 들어왔으며 언제부터 냉면이 평안도 사람의 입에 가장 많이 기호에 맞는 음식물이 되었는지는 나 같은 무식쟁이에게는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도 아니한다.

어렸을 때 우리가 냉면을 국수라 하여 비로소 입에 대게 된 시일을 기억하는 평안도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밥보다도 아니 쌀로 만든 음식물보다도 이르게 나는 이 국수 맛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어른들의 냉면 그릇에서 여

남은 오리를 끓여서 이가 서너 개 나나 마나 한 입으로 메밀로 만든 이 음식물을 받아 삼킨 것이 아마도 내가 냉면을 입에 대어 본 처음 일 것이다. 젓 먹다 뺨은 작은 입으로 이 매끈거리는 국수 오리를 감물로 쫄쫄 빨아올리던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하다.

누가 마을을 오든가 한 때에 점심이나 밤참에 반드시 이 국수를 먹던 것을 나는 겨우 기억할 따름이다. 잔칫날, 그러므로 약혼하고 편지 부치는 날에서부터 예물 보내는 날, 장가가는 날 며느리 데려오는 날, 시집가는 날 보내는 날, 장가 와서 묵는 날 가는 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이 국수가 출동

한다. 이 밖에 환갑날, 생일날, 제삿날, 장례날, 길사吉事, 경사慶事, 홍사凶事를 물론하고 이 국수를 때로는 냉면으로 때로는 온면으로 먹어 왔다.

심지어는 정월 열나흘 작은 보름날 이닢기엿, 귀밝이술과 함께 수명이 국수 오리처럼 길어야 한다고 ‘명길이국수라 이름 지어서까지 이 냉면 먹을 기회를 만들어 놓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평안도 사람의 단순하고 담백한 식도락을 추상할 수 있어 흥미가 새롭다.

속이 클클한 때라든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화풀이로 담배를 피운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런 때에 국수를 먹는 사람의 심리는 평안도 태생이 아니고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도박에 저서 실패한 김에 국수 한 양푼을 먹었다는 말이 우리 시골에 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국수는 확실히 술의 대

신이다. 나같이 술잔이나 다소 할 줄 아는 사람도 속이 클클한 채 멍하니 방 안에 처박혀 있다간 불현 듯 냉면 생각이 나서 관철동이나 모교毛橋 다리 옆을 찾아갈 때가 드물지 않다. 그런 때 거리에서 친구를 만나,

“차나 마시러 갈까?”

하면

“여보, 차는 무슨 차? 우리 냉면 먹으러 갑시다.”

하고 앞서서 냉면집을 찾았다.

모든 자유를 잃고 그러므로 음식물의 선택의 자유까지를 잃었을 경우에 항상 애끓는 향수같이 엄습하여 마음을 괴롭히는 식욕의 대상은 우선 냉면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냉면이 우리에게 가지는 은연隱然한 세력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방의는 냉면은 몸에 백해百害는 있을지언정 일리一利도 없는

식물食物이라 한다. 그런지 안 그런지 알 길이 없다. 혹중惑種의 보약 같은 것을 복용할 때 금기물의 하나로 메밀로 만든 냉면이 드는 수가 많은 것은 우리들의 주지의 사실이다.

국수를 먹고 더운 구들에서 잠을 자고 나면 얼굴이 부석부석 붓고 목이 케케하여 기침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냉면은 몸에 해로운 것인지도 모른다. 국수물. 다시 말하면 메밀 송농은 이노제로 된다.

트리펠Tripper(임질을 뜻하는 독일에)같은 걸 앓는 이가 냉면에 돈육이나 고추나 파나 마늘이 많이 드는 것은 꺼리지만 냉면 먹은 뒤에 더운 국수물을 청해다 한 사발씩 서서히 마시고 앉았는 것은 이 탓이다. 은근히 물어보면 이것을 먹은 이튿날의 효과는 어떤 고명한 이노약보다 으뜸간다고 한다.

냉면은 물론 메밀로 만든다. 메밀로 만든 국수는 사려 놓고 십여 분만 지나면 자리를 잡는다. 물

에 풀면 산산이 끊어진다. 시골 외에는 순수한 메밀로 만드는 국수는 극히 희소하다. 국수발이 질기고 끊어지지 않는 것은 소다나 카타쿠리かたくり(얼레지라는 식물의 뿌리로 만든 흰빛의 녹말가루)가루를 섞는 탓이라 한다. 서울의 골목마다 있는 마른 사리 국수 또는 결혼식장에서 주는 국수 오리 속에 몇 퍼센트의 메밀가루가 들었는지는 우리들이 단언할 수 없는 바다. 나는 서울서 횡행하는 국수의 대부분은 옥수수 농매(녹말)의 평안도 사투리나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사흘을 두었다가도 제법 먹을 수 있고 얼렀다가도 더운 국물에 풀면 국수 행세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수가 아니고 국수 유사품이다. 평양냉면이나 메밀국수와는 친척간이나 되나 마나 하다.

〈조선일보〉 1938년 5월 29일

* 출처 :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엮음

8월 결연 대상자 - 이정희(가명)

매일 방에서만 생활하는 아이, 엄마가 미안해.

삼삼오오 모여서 재잘 재잘 떠드는 소리, 다른 사람이라면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는 학생들의 수다가 그저 부럽기만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건 올해 54살 이정희씨(가명)입니다. 이정희씨는 어떤 사연이 있어 아이들에게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일까요?

김봉창씨(가명)와 이정희씨 부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딸이 한명 있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성실하며 자상했고 딸의 귀여운 미소로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

다. 것은 약 6년 전, 일을 하러 나갔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뇌병변을 앓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교통사고 이후로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하던 의류 사업을 정리하고 남편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부터 대소변을 받는 일까지 아내 이정희씨의 몫이었습니다. 가장 막막한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업 운영과 남편 수술 등으로 지인에게 약 5천만 원의 빚이 있어 생계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항상 착하게 키웠던 기특한 딸이었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유독 예민하게 행동했습니다. 이유는 학원에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어머니에게 학원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사춘기 예민한 시기였던 까닭인지 그날 이후로 조금씩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대인기피증상을 보이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학교 가는 일을 꺼려하는 딸을 등교시키기 위해 매일 아침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홀로 한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에게 희망을

이정희씨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장애수당 등 매월 약 100여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를 보살피며 중학생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입니다. 남편 병원비뿐만 아니라 이정희씨 본인도

우울증 및 피부병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로 학비는 무료지만 학습 준비물, 의복 등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작은 금액이지만 부채 또한 갚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월 30만원의 월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월세를 내지 못해 4천만 원의 보증금은 이제 3천만 원이 줄어들었고, 전기로 장기 미납으로 전기가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출 부분 중 가장 큰 부담은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세 30만원입니다. 이에 약 1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여 홀로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감!

글 • 고현희(공감대학 개발원장)

휴일에 느즈막히 일어나고 싶은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느즈막히 일어나 식사를 하고 여
유 있는 하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9시도 되기 전에 깨운다면
느낌이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
짜증난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귀
찮다, 속상하다’ 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순간 따뜻한 밥을 준비
해놓고 자녀를 깨우는 엄마의 바
람과 느낌은 무엇일까요? 휴일에
여유 있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가
족의 정을 느껴보고 싶으셨을까
요? 다시 잠을 자더라도 밥은 든
든히 먹고 자기를 바라셨을까요?
자녀가 항상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을 들이기를 바라신 것일까요?
‘밥 준비 다 되었는데 일어나서

먹고 다시 잘래?’ 라는 엄마의 말
에 자녀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2개의 답을 적어보세요.

답 1. _____

답 2. _____

지구에 50억 인구가 있다면 50
억 종류의 삶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귀한 존
재입니다. 다 다른 존재입니다. 같
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
둥이도 다릅니다. 어느 외국드라
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주 어느 행성에는 모든 사람이 다양한
가면을 쓰고 있다.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
에 큰 방에 30여명의 남자들이 모여 둥글
게 서있다. 그 중 한 남자가 가면을 힘들게
벗었다. 친근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그 다

음 남자도 가면을 벗었다. 친근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조금 전 남성과 똑같이 생긴!
그리고 계속 가면을 벗었는데 모두 똑같
이 생긴 남성이었다.’

그 행성에서는 모두 똑같이 생
겨서, 자신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면을 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누구와 같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
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이
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
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각
자는 다양한 느낌과 바람을 가지
고 있습니다. 상대의 느낌이 바람
이 나와 같기를 기대하지 마십시
오. 상대의 느낌과 바람을 있는 그
대로 인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려
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의 첫 째는 일단, 공감해주
기입니다. 공감은 아래의 방법으
로 해주십시오.

1. 공감해주려면 상대의 말을 그
대로 반복하면서 끝을 질문형으
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앵무새
질문’입니다.

배고파요 - 앵무새 질문 → 배고프구나?
힘들어요 - 앵무새 질문 → 힘들구나?

2. 앵무새 질문을 하기 힘든 긴
문장을 말했다면, 정리 혹은 요약
하거나 마지막 말만 반복해서 질
문형으로 하십시오.

오늘 학교에서 ... 일이 있었고, 그래서 ~
하게 되었어요 - 앵무새 질문 →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xxx 하게 행동해서 모두 불쾌
하게 생각했어요 - 앵무새 질문 → 아, 불
쾌했구나?

3. 앵무새 질문을 하기 힘들 경
우에는 ‘그랬구나?’, ‘그러셨군요?’
등의 말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4. 상대가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여 말해주는 것이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기쁘세요?' '지치셨어요?' '피곤하세요?' '계속 자고 싶으세요?' '답답하세요?'...

공감해주면 슬며시 마음이 열립니다. 심지어는 '힘드시지요?'라는 한마디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힘든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앵무새 되기를 해주며 공감해주시면 됩니다. 공감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힘들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공감해주기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휴일을 느긋이 보내고 싶은 고등학생이 '밥 준비 다 되었는데 일어나서 먹고 다시 잘래?'라는 엄마의 말에 '앵무새 질문'을 한다면, '엄마, 아침 먹고 다시 자라고요?'입니다.

'응, 너와 같이 아침 먹고 싶거든.....'

'저하고 아침 같이 드시고 싶으세요?'

'응..... 더 자고 싶네'

'네, 아침 안 먹고 폭 자고 싶어요' '아침 안 먹고 폭 자고 싶구나..... 알겠어, 먼저 먹을게'

이렇게 공감을 서로 나눈다면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서로 공감해주었다는 마음으로 흐뭇할 것입니다.

여름이 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정의 여름을 지나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겠지요? 공감해주기를 열심히 하시면, 어느 순간 절정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실 것입니다.

늪어갈 용기

글 • 최길시(회원)

누구나 살아가며 결단하고 실행하는 데 크고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 매일매일 펼쳐지는 새로운 환경에, 닥쳐오는 일에 적응하고 헤쳐나가기 위해, 앞길을 막아서는 수많은 사건과 시련을 이기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용기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몇 살쯤이었을까? 꼬마친구들 몇이서 놀다가 도랑을 건너야 했다. 덩치도 크고 늘 용감했던 한 친구가 가볍게 폴짝 뛰어서 넘었고 또 한 친구도 별로 어렵지 않게 뛰어 건넜는데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저 거리를 무시히 뛰어넘을 수 있을까? 몇 번이나 뒤통나 말까 망설이다가 도랑물에 빠져 웃음거리가 되고 어머니

께 야단 들을 것이 두려워 멀리 빙 돌아갔었다. 그 다음 날 혼자 그 도랑을 지날 때 눈을 꼭 감고 뛰어보았다. 눈을 떠보니 저만큼 멀어 보이던 건너편에서 있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부딪혀 오는 세파에 맞서 헤쳐나가거나 요령있게 따라 흘러가거나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일수록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인생길의 고비에서는 특단의 용기와 인내를 발휘하지 못하면 성공이라는 희열을 맛볼 기회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다. 돌아보면, 만용 때 문이었는데 모르지만 실패한 적도 있었고, 십중팔구 불가능할 것 같

아 도전과 포기 사이에서 고민하다 어렵사리 용기를 내었던 것이 의외로 성공을 거둔 적도 있었다. 지나고 보면 실패했던 일의 후회나 안타까움보다는, 중도하차나 실패할 것이 두려워 뒤로 물러섰던 일들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가보지 못한 그 길에 대한 아름다운 동경과 함께, 좀 더 과감했더라면 더 깊은 골짜기와 높은 언덕 사이로 난 더 풍성한 내 인생의 숲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젊을 때는 세상 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니 의욕도 솟고 두려움은 용기에 밀려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는 딱히 해야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솔직히 용기는 귀찮음과 두려움에 겹어차이고, 자신은 저만큼 강물 위를 둥둥 떠 흘러가는 나뭇잎같이 느껴진다. 그렇다고 어찌하겠는가? 나의 아버

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위…… 모두가 그렇게 늙어가다 가는 걸. 늙어간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겪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적거리지 않는 곳이 없고, 기억력 근력 등 무슨 력(力)이라고 붙은 것은 모조리 힘을 잃어가는데…….

이러면서 왜 숨을 붙이고 있어야 할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결국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란 걸 알게 된다.

며칠 전 『늙어갈 용기』라는 책을 보았다. 보는 순간, ‘아, 그렇겠구나. 늙어가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없던 지혜를 얻는 것 같았다. 늙어가는 것이 나의 의지로 오고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그라지는 젖 불 같은 것일지라도…….

인류 역사 이래 노화에 맞서서

불로와 영생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용기도 있지 아니한가? 세상사 무상하나니, 사물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가고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절망하여 우울에 빠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는 용기, 주름 생기고 기력 떨어지고 병고에 시달리는 노쇠해진 모습을 원통해하거나 애달파하지 말고 수긍하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 내 인생의 대미를 아름답게 보내려는 용기, 곧 오게 되어 있는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곧 늙어갈 용기라니…….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90세의 지미 카터는, 암이 간과 뇌로 전이되어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후에도 화내거나 실망하지 않고, ‘아, 이제 살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도 마음이 편한 한 이유는,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니…….

최길시 • 1960년 강릉사범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단에 들어선 이후 2004년에 분당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2006년에 정년퇴임했다. 본모임 회원이며 46년간 교단에 머물며 제자들에게 ‘인생의 등불’이 되어온 최길시 선생님의 『황혼, 그 기막힌 순간을 지나며』를 통하여 황혼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나이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고민, 세대 간에 느끼는 격세지감 등 여러 사회현상에 대한 단상을 담아 보고자 한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소식과 법정 스님 글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기부자께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빅터 플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글 • 윤부혁(작가)

“잘 듣게 오토. 만약 내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네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전해 주게. 내가 매일같이 매시간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두 번째로 내가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세 번째로 내가 그녀와 함께 했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여기서 겪었던 그 모든 일보다 나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해 주게. 오토,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나? 아직 살아있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네 아내를 다시 만났나? 그리고 기억하나? 자네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자네에게 내 유언을 한 마디 한 마디 외우게 했던 것을.”

빅터 플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준 자서전적인 체험 수기이며 정신분석이론서다. 지옥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플랭클 박사는 자신만의 독특한 정신분석 방법인 로고테라피 이론을 완성한다.

역사에는 끔찍한 고통을 이겨낸 인물이 수없이 많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책의 저자 빅터 플랭클인데, 정신과 의사로 활발한 활동 중이었던 그는 2차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 앞에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 그는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평

생 연구한 원고를 빼앗기는데, 생명과 같은 원고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수한 발길질과 냉소뿐이었다. 발가벗겨진 그에게는 안경과 허리띠가 전부였다. 그러나 얼마 후 허리띠마저도 빵 한 조각과 바퀴 먹고 만다. 견디기 어려운 추위와 배고픔, 정신적 공허감 속에서 무수한 동료들이 눈앞에서 죽어갔는데 그를 포함한 극소수만이 목숨을 부지했다.



한 장의 모포로 9명이 바닥에서 웅크려 칼잠을 자는 비참한 상황에서 그의 수용소 생활 첫날은 시작된다. 플랭클은 3년 동안 아우슈비츠를 포함해 네 곳의 수용소를 전전한다. 살아남기 위해 매일

우리 조각으로 면도하고, 동상 걸린 발을 신발 속에 구겨 넣으면서도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낸다. 매일 수많은 수용자가 죽어 나갔는데 그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동료를 발견하게 된다. 그 와중에서는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극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희망이 있으면 절망의 환경도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임을 깨닫는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의지, 자신을 바꿀 힘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임을 체감한다.

저자는 인간이란 매일 아무 감정 없이도 남을 해칠 수도 있는 끔찍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 목격한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해서도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기꺼이 주위에 나눠줄 수 있는 위대하고 강한 존재임도 또한 깨닫는다. 어느

날 밤. 그는 온종일 중노동에 시달린 몸에 배고픔을 참으며 누워 있는데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는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수용소 막사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수용자 모두 석양으로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린다. 내일 어떤 순간을 맞게 되더라도 그 순간만은 인간 본연의 감성을 공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다. 자신의 내면과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살아남았고, 아우슈비츠에서의 생활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남겼다.

그는 3년 동안 네 군데의 수용소로 옮겨졌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다짐이 그를 살렸다. 부모와 아내, 남동생을 모두 잃는 비극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사실 그는 함께 체포되어 이송된 수용소가 갈리는 바람에 아내가 수용소 입소 초기에 사망한 것도 알지 못했다. 긴 고통의 시간의 종말, 1945년 8월, 전쟁이 끝나 고향인 빈으로 돌아온 후에야 아내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목숨을 건져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신의 삶이 앞으로 더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정신과 의사인 그가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살아남은 그의 친구들은 그가 자살할까 걱정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우울함의 늪에서 빠져나온 그는, “인생에서 어떤 시련을 겪는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일 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주위의 지인들에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생각을 조금씩 확장해



가던 그는 자신의 수용소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불과 9일 만에 초고를 완성한 이 책의 독일어판 제목은 〈한 심리학자의 강제수용소 체험기〉다. 영어판 제목은 〈인간의 의미 탐구 (Man's search for meaning)〉인데, 한국에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이후 그가 쓴 31종의 저서 중 가장 널리 알려졌고,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

빅터 프랭클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서 돌아왔으며, 그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의학계에 한 획을 긋는 의미치로

라는 ‘로고테라피(Logotherapy)’ 이론을 정립했다. 그의 로고테라피 이론에 따르면, 극한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삶과 죽음은 개인의 내적인 힘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그는 개인의 선택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결정함을 강조한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케 하거나,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본인에게 달렸다는 의미다.

나치가 만든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에서의 모든 상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하도록 만든다(최근,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탈북자들의 수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평범한 삶에서는 당연했던 모든 인간적인 목표들이 그곳에서는 철저히 박탈당한다.

그러한 극한상황에서도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운명을 초월하는 인간의 능

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환자들이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환자들에게 상황이 아무리 참담해도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위해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깨우쳐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반복해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즉 고결한 사람이 되느냐, 인간의 존엄을 잃고 짐승 같이 되느냐는 것은 그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 자유, 즉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길을 선택할 정신의 자유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자유를 잃게 되면 물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홀로코스트

경험 같은 끔찍한 시련도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중요한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여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매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적 소외 속에서 나아가는 현재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내용이다.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계좌

-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살 빼는 방법

슈라바스티의 한 왕은 탐욕에 가득 차 눈은 물건에 현혹되고, 귀는 소리에 혼란스러워 했으며, 코는 향기에 집착하고, 혀는 다섯 가지 맛에 탐착했으며, 몸은 촉감을 실컷 향락했다.

끼니때마다 진수성찬을 대하고도 만족할 줄 몰랐고, 그 가짓수와 양은 갈수록 늘었지만 왕은 항상 허기를 느껴 허겁지겁 게걸스럽게 먹었다.

그러자 자꾸 살이 찌고 몸이 불어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몹시 괴로워했다. 한번 누우면 일어날 줄을 몰랐다. 왕의 몸이 자꾸 불어남에 따라 그의 수레도 점점 큰 것으로 바뀌어 갔다.

왕은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체중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세존이시여,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무슨 죄업 때문인지 몸이 자꾸만 불어나 행동하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다섯 가지 일로 살이 찹니다. 첫째는 자주 먹기 때문이고, 둘째는 잠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잘난체 거드럭거리기 때문이고, 넷째는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일하지 않고 놀기 때문이오. 이 다섯 가지가 사람을 살찌게 하니, 만일 살을 빼고 싶거든 먼저 먹는 음식을 줄이고, 잠을 덜 자고,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백성들의 일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하고, 놀지 말고 일을 하시오. 그렇게 하면 전과 같은 몸매를 지니게 될 것이요.”

부처님은 다시 계송을 읊으셨다.

사람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음식을 보고 적게 먹을 줄 알면
그로 말미암아 살찌는 일 없고
소화 잘되니 목숨 보전하리라.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요리사를 불러 말했다.

“이 계송을 잘 외워 두었다가, 내 계 음식을 내올 때는 먼저 이 계송을 들려다오.”

그 후부터 요리사는 음식을 내올 때마다 목청을 돋우어 이 계송을 읊었다. 왕은 이 계송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루 한 손가락씩 줄여 차츰 적게 먹었다. 그래서 살이 빠져 예전처럼 되었다.

왕은 기뻐하면서 몸소 걸어 부처님께 나아가 절을 올렸다.

부처님은 왕에게 물으셨다.

“수레와 말과 시종은 어디 두고 혼자서 걸어왔습니까?”

왕이 말했다.

“전날 부처님의 훈계를 듣고 가르침대로 행해 몸이 전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 일이 기뻐서 수레와 시종을 물리치고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탐욕만 기르면서 복된 일은 생각지 않소.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떠나고 빈 껍데기인 몸뚱이만 무덤에 버려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정신을 기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육신을 기릅니다. 만일 그런 줄 알았거든 성인의 교훈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시오.”

* 출처 : <법구비유경> 광연품(廣衍品)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 2017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안내 -

일요특강 : 8월 27일(넷째 일요일) 오전 11시 / 설법전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허성원 대표 변리사

“망치를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특허’는 비교적 익숙한 단어이면서도 그 분야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영역이다. 이런 특허를 주로 다루는 변리사는 경력이 쌓일수록 접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허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려는 직업병적인 경향이 있다.

‘특허’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다. 아무런 유형의 자원을 소요하지 않고도 가치가 높은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무체 재산인 특허의 분야는 조용한듯 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창의력, 공격과 방어, 전략 전술 등 매우 동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필요로 한다.

‘특허’는 지식사회를 맞아 잘 이해해둘 필요가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특허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허적인 사고방식’을 경험해보자.

허성원 변리사는 매일 경제 신문 특허상표 전문가 필진, 경남변리사협의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일)에는 허성원 변리사를 초청하여 특허와 경영이야기, 상담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맏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



진인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매월 둘째 일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에서 8시 30분에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파주 요양시설에 도착합니다. 차 안에서 봉사자들과 그동안 있었던 일, 재미난 입담으로 1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도착합니다. 그렇게 도착하면 오전에는 어르신들 식사에 쓰이는 식자재를 다듬는 활동을 하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시간에는 시설 어르신들 한분 한분에게 인사하며 손을 꼭 잡아드리며 잘 계셨냐고 안부를 물으며, 어르신들과 박수치며 흥겹게 옛 동요와 트로트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고 어색하다가도 어느 순간 같이 박수치며 따라 부르게 됩니다. 비록 한 달에 한번이지만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기다려지는 자원활동입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2,000여명의 어르신에게 점심 배식활동과 설거지, 정리정돈 등을 합니다. 맏고 향기롭게 자원봉사팀은 매주 월요일 진행되고 있으며,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맏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맏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1,000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맏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따

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고, 메뉴가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밀반찬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꼭 여름철이 아니어도 영양 좋고 맛있는 우리 집만의 메뉴가 있으면 살짝 애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화 말벗 자원활동

전화 말벗 자원활동은 맏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은 매월 넷째 화요일에 길상사 다라니다원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모임을 갖는 이유는 어르신들께 유익한 정보에 대한 공부와 어르신들의 근황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전화말벗 자원활동에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뜻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밀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자원활동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코백을 만들고 있는데, 100% 봉사자의 기술과 100% 수제 스탠실 프린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방마다 약간의 차이(0.5cm미만)와 프린팅 표면의 질감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에코백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뜻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맏고 향기롭게에서만 구매(판매가 5,000원)할 수 있으며, 판매수입금은 맏고 향기롭게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 의류리폼 봉사팀에서는 의류 재순환



리사이클링)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지는 원단(면, 실크, 폴리, 자카드, 생지 등)을 기증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증해주시는 원단은 가방, 매트, 앞치마, 실내용 등 재순환되어 수명을 연장시키고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살리는 생활운동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봉사자와 뜻있는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안내 (짝수 달 매주 수요일)

천연화장품 강좌는 만들어 쓰는 약간의 불편함은 분명 있지만,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만 끼치며,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생태적인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는 짝수 달(2, 4, 6, 8, 10, 12월) 첫째주에서 넷째주 수요일에 샴푸, 로션, 에센스, 비누&스킨 순서대로 강좌가 진행됩니다.

상반기 봉사팀별 간담회 진행

맑고 향기롭게 정기자원활동 봉사팀과 사무국 활동 간사 간에 의견을 나누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각 봉사팀별로(리폼봉사팀, 소식지우편발송팀, 전화말벗봉사팀, 서울노인복지센터봉사팀, 반찬나눔봉사팀) 진행하였습니다. 각 팀별로 상반기 출석율이 높

은 봉사자들에게는 시원한 여름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채를 하나씩 선물해드렸고, 간담회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길아니하면 가지 말라' 책 한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봉사현장에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를 대표해서 화내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실천하는 회원님과 봉사자 덕분에 세상은 더욱더 맑고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7월 8일 숲기행 전복 고창 선운사, 도솔암, 참당암 탐방

맑고 향기롭게에서 진행하는 숲기행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짧게 소개드리면 오고가는 버스 안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고, 탐방지에 대한 사전 안내, 소감, 숲해설가의 꽃과 나무에 대한 설명, 현지 해설사의 탐방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7월 8일(토)은 전복 고창 선운사, 도솔암, 참당암을 4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선운사로 향하는 동안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무섭게 비가 내렸지만, 신기하게도 선운사에 도착하니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운사에서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은 선운사 템플스테이를 담당하고 계신 원정스님이었습니다. 대웅보전에 웅기종기 앉

아 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선운사 동백꽃 이야기, 금동지장보살이 반환되었던 이야기 등 재치 있고 쉬운 설명에 선운사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스님의 설명을 듣고 선운사를 참배 한 후 도솔암으로 향했습니다. 지면을 빌어 원정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촉촉이 젖은 대지의 신선한 흙 내음이 후각을 자극하는 도솔암 숲길을 걸었습니다. 숲을 오르며 만나는 식물과의 짧은 인연과 숲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자연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개울가 옆에 웅기종기 모여 명상의 시간을 가진 후, 도솔암에 도착하여 마애불과 내원궁을 참배했습니다.

9월 숲기행은 9월 9일(토), 전남 모악산 불갑사와 모평마을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참가신청: 사무국 02.741-4696)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CMS 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3일(목)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 : 27일(넷째 일요일) 허성원 변리사/오전11시/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0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



도 랜샴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3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2일)/오후 1시30분/다라니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9,26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전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말벗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말벗봉사 :
매주 금요일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 3주 토요일

• 숲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9시 30분~오후 2시/봉사
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선택)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
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
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
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
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
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
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6회차 기도가 6월 24일(토)에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백중2재 : 8월 1일(화) 오전 9시 50분

백중3재 : 8월 8일(화) 오전 9시 50분

낙태 영가를 위한 천도재

백중4재 : 8월 15일(화) 오전 9시 50분

백중5재 : 8월 22일(화) 오전 9시 50분

반려동물을 위한 천도재

백중6재 : 8월 29일(화) 오전 9시 50분

※ 백중 기도는 극락전에서 봉행됩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8월 5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
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는 항상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보름기도

- 일시 : 8월 6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8월 9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대입수능 100일기도 입재

- 일시 : 8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8월 12일(토) 오후 8시 00분
~8월 13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 8월 15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
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8월 22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칠석기도

- 일시 : 8월 28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8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백중2재	8월 1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3재	8월 8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4재	8월 15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5재	8월 22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6재	8월 29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8월 5일(토)	저녁 6시	극락전
보름기도	8월 6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8월 9일(수)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입시기도 입재	8월 9일(수)	오후 2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8월 12일(토)	저녁 8시	극락전
관음재일	8월 15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8월 22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칠석기도	8월 28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마음·세상·자연’ 제 1회 사진 공모전

– 공모기간: 2017. 5. 10(수) ~ 8. 10(목) –



공모주제 길상사내의 맑고 향기로운 수행,
나눔, 자연, 사계절 사진 공모전

공모자격 제한없음

공모기간 2017년 5월 10일 ~ 8월 10일까지

입상작 발표 8월 30일(예정)

접수방법

- (새)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 (clean94@hanmail.net)

- 1인 3작품 이내

출품규격

- 디지털 사진 /JPG 이미지파일, 최소 1,000만 화소&5MB 이상
- 필름 사진은 스캔 후 응모 가능
- 출품 사진의 촬영 년도는 무관합니다.



유의사항

- 시상작은 공모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 및 간행물 발간, 홍보 자료 제공 등 복제,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작품으로 인한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시상내용

종류	인원	상금액
대상	1	상장 및 상품권 150만원
최우수상	2	상장 및 상품권 50만원
우수상	3	상장 및 상품권 30만원
장려상	6	상장 및 상품권 20만원
입선	30	상품권 3만원

주최 맑고 향기롭게 **주관** 길상사

사진 공모전과 관련된 세부 내용과 참가신청서는 (새)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 / Tel. 02.741-4696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 2017. 8.14(월) ~ 9.16(토)
- 참가 대상 : 전국 초등학교
- 접수 인원 : 선착순 150명(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사)맏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
- 접수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행사 안내

- 일시 : 2017. 09. 24(일) 13:00~18:00
- 장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 내
- 참가 부분 : 운문 · 산문
-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받침대, 돗자리, 물

발표 및 시상식

- 발표일 : 10월 18일(수) 예정
(사)맏고향기롭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시상식 : 10월 29일(일) 예정

유의사항

- 출품하신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에 한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 및 책자로 제작, 배포할 수 있음
- 문의 전화 : 02.741-4696
(상담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주최 맏고 향기롭게 협찬 길 상 사

시상 내역

구분	저학년		고학년		상금
	운문	산문	운문	산문	
장원	각 1명 (총 4명)				상장 및 상품권 30만원
말음상	각 2명 (총 8명)				상장 및 상품권 20만원
향기상	각 3명 (총 12명)				상장 및 상품권 10만원
장려상	각 5명 (총 20명)				상장 및 상품권 5만원
총계	총 44명				

* 상금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수상자 전원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무소유' 동화책을 드립니다.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사)맏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 / Tel. 02.741-4696